

은 상

문세영 (대구 매호초등학교 5학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건강

지금 우리 집에는 도너츠가 사라졌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시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실 때마다 많은 도너츠가 생겼다.

처음에는 동그란 모양에다가 하얀 연기로 만들어진 도너츠가 신기해서 자꾸만 보고 싶단 생각을 많이 했지만 언제부터든 그 냄새가 너무 싫었다. 먹는 도너츠는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담배 연기로 만든 도너츠는 자욱한 연기만 남기고 금방 사라져 버린다.

하지만 그 많던 담배 도너츠가 드디어 우리 집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동안 아버지를 괴롭히던 담배를 끊으셨기 때문이다. 난 그 도너츠가 이제는 거실에도 베란다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기뻐했다. 이젠 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담배를 끊으시고는 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담배가 어떤 것인지 금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아버가 담배를 끊으신 데에는 아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동생과 날 생각하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다. 작년에 아버지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을 호소하셔서 119에 실려 간 적이 있었다. 검사결과 큰 병은 없으셨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도 당장 담배를 끊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셨다.

그 일이 있는 후, 큰 결심을 하고 담배를 끊으셨다.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 아버지는 예전과 달리 아주 밝은 생활을 하고 계신다. 거기다가 우리 가정도 밝은 웃음으로 가득하다. 담배가 없어지니 우리 가족 생활이 180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엄마와 우리 가족 모두의 걱정이 많았다. 그리고 아버 옷과 집안 구석구석에는 담배 냄새가 많이 났다. 나는 그 불쾌한 냄새가 너무 싫었다.

그러나 요즘은 아버 옷에는 열심히 일해 땀으로 젖어 있고 담배 냄새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집은 엄

마가 사오시는 꽃으로 향기가 방안에 가득하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버의 건강이 예전보다 너무 좋아지신 것이다. 예전에는 짜증이나 화도 많이 내시고 신경이 예민하신 거 같았는데 지금은 많이 편안해 지신 듯 아버 말을 그대로 빌리면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은 느낌이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 너무 좋다. 하지만 너무 맘 놓고 있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 할아버지와 고모부, 외삼촌도 그 안 좋은 담배를 피우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 주위엔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다 잘 알고 있는데도 습관이 되어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같다.

나쁜 습관은 꼭 고쳐야 한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면서 어른들은 왜 그런 습관을 못 고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빠도 처음에는 담배를 끊기 힘드셨지만 아버의 건강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끊으셨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건강과 가족을 위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며칠 전에는 아버가

“세영아, 우리 팔공산에 놀러갈래?”

아빠의 제안에 나는 금방이라도 하늘에 뛰어 오를 듯한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다.

“응, 빨리가요, 아빠.”

그날따라 아버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운 것 같았다. 잘 못 올라가는 동생과 나까지 양손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밝은 얼굴을 보이셨다. 이마의 땀이 예전보다 많이 맺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난 아버의 뒷모습에 웃음을 드렸다.

‘우리 아빠 건강이 너무 좋아지셨네.’

우리의 마음은 이미 팔공산 정상에 올라 있었다. 우리 가족은 이마에서부터 흐르는 기분 좋은 땀방울을 서로 닦아 주며 열심히 산을 올랐다. 모든 가정의 아버들이 담배를 끊으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

자랑스러운 아빠

지난 겨울에 우리 집에는 난리가 났었다. 아빠가 담뱃불을 잘못 두셔서 신문에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엄마가 아끼시던 스카프를 태우고 만 것이다. 그 스카프는 아빠가 결혼 25주년 기념 선물로 엄마께 사드린 비싼 스카프였고, 또 아빠께 모처럼 받은 선물이라서 무척 아끼시던 것이었다.

엄마는 화가 나서 난리였다.

“홍, 우편다고 선물을 다해 주더니, 그 새를 못 참고 금방 홀리당 태웠단 말이요? 내사 문살야. 담배 때문에 언젠가는 난리 한 번 날 줄 내 알아봤지.”

“아, 시끄럽다. 고마 치아라. 더 비싼 거 다시 사주꾸마.”

아빠가 오히려 큰소리를 치셨지만 엄마의 화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날 담뱃불 자국이 우리 집 안방 장롱 앞에 내 손바닥만한 자국으로 남아 있었다. 아빠는 그 자국을 볼 때마다 이렇게 소리를 치셨다.

“장관 새로 안 깔고 뭐하는 기고?”

“네는 마, 당신 담배 끊기 전에는 절대로 장관 새로 못 깔개요. 알아서 하소. 당신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이번에는 내가 절대로 안 절개요.”

엄마도 지지 않고 아빠께 대들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담배와 장관 때문에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났다. 그러던 우리 아빠가 지난 2월부터 금연을 시작하셨다. 아빠가 금연을 결심하게 된 것은 엄마 때문도 아니고, 장관 때문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간접 흡연을 시키기 때문도 아니었다. 바로 뒷집 진씨 아저씨 때문이었다. 진씨 아저씨는 1월에 돌아가셨다. 처음에는 위암이었고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셨다가 재발하여 나중에는 폐암에 걸리셨다. 아직 환갑도 안 되셨는데 돌아가셔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도 들었다.

그 진씨 아저씨는 아빠의 술친구였다. 아빠는 진씨 아저씨와 술을 마실 때 담배를 더 많이 피우셨다. 아빠는 진씨 아저씨가 돌아가신 것이 충격적이었던 모양이

다. 아저씨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신 뒤에 가족들을 모아 놓고 금연 결심을 발표하신 것이다.

우리는 아빠가 과연 금연을 할 수 있으실까 하고 의심을 했다.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도 하고 싸워도 한 번도 금연을 결심하지도 않으셨으니까 말이다.

그러던 아빠는 정말 잘 참아내셨다. 지금까지도 금연을 실천하고 계신다.

아빠는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담배를 너무나 피우고 싶다고 하신다. 그래서 껌을 사놓고 식사를 한 뒤에 하나씩 씹으신다. 우리가 어찌다가 껌을 몰래 꺼내 씹으면 아빠는 단번에 알고 계신다.

“이 껌은 내 담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손대지 말아라.”

아빠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빠의 껌에 손대지 않는다.

아빠는 담배를 끊고 나서 밥맛이 좋아졌다고 하신다. 가래가 줄어들고 기침이 안난다고 하신다. 정말 다행이다.

담배도 습관이야. 한 번 피우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어 계속 피우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컴퓨터 오락을 한번 시작하면 습관이 되어 자꾸 하고 싶은 것처럼 말이다. 마치 컴퓨터가 우리를 맡없이 부르는 것처럼 담배도 아빠를 맡없이 부르고 있었는가 보다.

이제 아빠는 담배를 끊으시고 운동도 시작하셨다. 우리 동네 헬스클럽에 나가서 열심히 러닝머신을 달리신다. 아빠는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다니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난 진씨 아저씨처럼 되지 않으려고 금연을 실천하신 것 같다. 담배와 술은 건강에 해롭고 병에 걸리든 돈도 많이 들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하니까 말이다.

지금은 우리 인방에 노란 바탕에 예쁜 꽃무늬가 수놓인 새 장관이 깔렸다. 새 장관은 아빠의 금연을 축하하고 금연의 약속을 지키는 증거물이기도 하다. 금연을 실천한 우리 아빠가 자랑스럽다. 나도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것이다. 